

트럼프 “조만간 백악관에서 만나자” 김정은 초청

폼페이오 주도 실무협상... 김정은 회동 뒤 실무협의 공식화 “文대통령, 북미 대화 긴밀 관여... 더 역사적인 결과 나올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주도로 2~3주간 실무협상을 구성해 협상을 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에 따라 북미 실무진 간 차기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협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판문점 남측 자유의집에서 김 위원장과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 많은 복잡한 많은 일이 남아있지만 우리는 이제 실무진의 논의를 지켜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폼페이오 장관과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등 많은 실무진이 노력해왔다. 비건 대표는 상당한 전문가라며 “양측은 실무진에서 뭔가 합의할 수 있을지 노력할 것이다. 복잡한 일들이 남아있지만 우린 큰 승리를 이뤄내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미국은 폼페이오 장관이 (실무협을) 선정해 이미 (명단을) 갖고 있다. 비건 대표가 (실무협의) 대표가 될 것”이라며 “비건 대표는 전문가인 동시에 한국과 북한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비건 대표가 저를 대표해 협상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시에 “우리는 각각 대표를 지정해 포괄적인 협상과 합의를 하겠다는 점에 대해 합의했다”고 말했다.

새로운 실무 팀을 꾸리는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미 팀을 갖고 있고, 양측이 선호하는 상대들과 얘기하기로 한 것”이라며 “과거 상대보다 새로운 상대와 더 좋은 대화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만남에 대해 “상당히 좋은 회의를 가졌다. 오늘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역사적인 순간이자 역사적인 날”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은 이 만남 자체가 역사적이라고 했는데, 저도 동의한다. 여기서 더 역사적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봐야 알겠지만 우리는 속도보다 올바른 협

상을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두를 필요는 없다. 서두르면 항상 실패를 하게 된다”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제재와 관련해서는 “언젠가 해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언젠가는 해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협상을 진행하다보면 해제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저는 김 위원장에게 하노이 회담도 큰 성공이라고 얘기했다. 오늘과 같은 만남이 다시 이어졌기 때문에 더욱 성공으로 본다”며 “언론은 반대도 보았고, 회담이 합의로 이뤄지지 않았지만 그건 성공이었고 이후 우리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몇달 간 실무진의 논의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향해 “감사를 표하고 싶다. 제 제안에 반응하지 않았다면 언론의 평소 행태로 봤을 때 저에게 아주 부정적 결과가 있었을 것”이라며 “짧은 시간에 반응을 줬 감사하다. 짧은 시간에 회담을 준비하기 어려운데 경호팀이 열심히 해주셨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핵 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양측은 아주 긍정적인 지를 갖고 있다”며 “오늘 상황 이후 과거보다 더 좋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분계선을 넘어 ‘깜짝 월경’을 할 때 상황도 전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계에서 만나 김 위원장에게 ‘경계선을 제가 넘어가길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영광입니다’라고 물었고, 김 위원장이 동의했다”며 “미국 대통령 사상 처음으로 하는 일이라는 걸 알고서 영광”이라고 했으나, 김 위원장이 어떤 답을 할지는 미리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에 대한 백악관 초청 의사도 거론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가 김 위원장을 만나 ‘김 위원장이 희망한다면 언젠간 백악관을 방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단계에 따라 어떻게 진행될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희는 사실 (단거리미사일) 미사일 실험이라고 간주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30일 오후 판문점 군사분계선 북측 지역에서 인사한 뒤 함께 남측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 않는다. 저희가 관심있는 것은 탄도미사일 뿐”이라며 “북한은 탄도미사일도 핵 실험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남의 성사가 갑작스럽게 이뤄졌고, 경계선 주변에서 5분보다 길게 대화를 나눴다”며 “아주 긍정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을 향해서도 “이렇게 평화적으로 많은 진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문 대통령 덕분”이라며 “북미 대화에는 문 대통령도 긴밀히 관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각본없는 판문점 드라마... ‘세계사’ 새로 쓰다

文대통령·트럼프·김정은, ‘분 단위’ 숨가쁜 행보 트럼프, 김정은에 먼저 제안 북한 땅 처음 밟아

30일 판문점에서 전격적으로 성사된 남북미 정상 회동은 그 자체로 ‘역사’가 됐다. 세계사적으로 마지막 남은 냉전의 화약 고이자 남북 분단의 상징이 된 이 곳에서 세 정상은 그야말로 각본없는 드라마를 연출하며 세계사를 새로 써내려갔다. 세 정상은 외교 프로토콜을 과감히 무시한 채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라는 화두에 몰두하며 분(分) 단위로 숨가쁜 행보를 이어갔다.

판문점이 본격적으로 분주해지기 시작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회담 중이던 오후 12시15분경부터. 김정은 국무위원회 부장 등 북측 관계자들이 동선을 확인하며 바삐 움직였고, 북측 관계자 10명가량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자유의집에 입장했다. 미국 측 관계자들도 윤경연 청와대 상황실장 등과 함께 동선과 일정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DMZ OP 오울렛 초소와 캠프 보니파스 방문을 마치고 판문점으로 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후 3시44분 판문점 남측 자유의집 문을 열고 군사분계선을 향해 천천히 걸었다. 신중하게 걸음을 내디딘 그는 1분 뒤 3시45분 드디어 김 위원장과 마주했다. “내가 넘어가길 바라나. 그렇게 되면 영광”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김 위원장이 동의하면서 두 정상은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측으로 향했다.

‘사상 처음으로 북한 땅을 밟은 미국 대통령’이 된 트럼프 대통령은 무표정한 얼굴이었지만, 북측 판문각 앞에서는 미소를 띤 채 김 위원장과 4초간 악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념사진을 찍은 뒤 1분 만에 김 위원장과 함께 남측으로 넘어왔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5분가량 대화를 나눈 뒤 오후 3시51분에는 문 대통령이 합류해 ‘남북미 3자 회동’이 성사됐다. 남북미 정상은 환한 미소와 함께 악수를 주고받고, 동그렇게 모여 대화를 나눴다. 파란 넥타이에 태극기 배지를 한 문 대

통령과 빨간 넥타이에 성조기 배지를 한 트럼프 대통령이 ‘패션 대비’를 이루는 가운데, 김 위원장은 배지 없이 검은 인민복을 입고 등장했다.

3분 정도 환담을 한 세 정상이 자유의집으로 들어가는 도중에는 취재진이 열띤 취재 경성을 벌이다 포토라인이 무너지며 소란이 일어났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아주 특별한 순간”(트럼프 대통령), “어제와 달라진 오늘을 표현하는 것”(김 위원장)이라고 서로 반가움을 표시하며 오후 3시59분부터 단독회담에 돌입했다.

애초 2~4분가량 짧은 만남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두 정상은 예상보다 53분 동안 머리를 맞대고 사실상의 3차 북미정상회담을 했다.

오후 4시52분, 단독 회동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별도 대기실에서 기다리던 문 대통령은 함께 자유의집을 나섰다. 세 정상 모두 회동결과가 만족스럽다는 듯이 밝고 환한 표정이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분계선까지 함께 걸어가 김 위원장을 배웅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포옹을 나누기도 했다.

이후 한미정상회담은 다시 자유의집으로 돌아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했다.

예정된 일정보다 상당히 늦어졌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만남은 아주 긍정적인 일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좋은 일이다. 김 위원장과 저는 상당히 거친 대화를 주고받기도 했지만, 이제는 굉장히 좋은 관계”라며 적극적으로 질문에 답변했다.

오후 5시10분, 트럼프 대통령은 자유의집 앞에서 대기 중이던 차량에 탑승하려다 다시 문 대통령에게 걸어나 1분가량 대화를 나눴다. 웃는 얼굴로 대화를 마친 트럼프 대통령은 그제야 차량에 올라 손을 흔들며 판문점을 떠났고, 문 대통령도 3분 뒤 판문점에서 출발하면서 남북미 정상의 만남은 마무리됐다. /임동욱 기자 tuim@연합뉴스

김정은 “트럼프와 훌륭한 관계, 난관 극복 신비로운 힘 될 것”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판문점에서 회동한 데 대해 “앞으로 우리가 하는 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판문점 남측 지역 자

유의집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우리 훌륭한 관계가 남들이 예상 못하는 좋은 일을 계속 만들면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아질수록 난관과 장애를 극복하는 신비로운 힘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북남 사이 분단의 상징으로 나쁜 과거를 연상케 하는 이런 장소에서 오랜 적대관계였던 우리 두 나라가 평화의 악수를 하는 것 자체가 어제와 달라진 오늘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

령이 이런 (저를 만나겠다는) 의향을 표시하신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사전에 합의된 만남이 아니냐 하는데 정식으로 만날 것이라는 걸 오후 늦은 시각에야 알게 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더 좋게 우리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는 만남이라 긍정적으로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h1>입야</h1> <p>바로 삽니다</p> <p>지분물건환영.010-6834-7400</p>	<h1>교환전문</h1> <p>빌딩/토지/입야등 모든 부동산</p> <p>정확/신속처리.010-3605-5000</p>
---	--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담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계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계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풍수 사주 수강생 수시 모집 및 상담

풍수와 사주(명리)를 한번에~
동전의 양면처럼 뱉 수 없는 관계인 풍수와 사주, 이 두가지를 동시에 해결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 개 강 (6개월 과정)

- 일 시 : 2019. 7. 2(화) 오후7시
- 장 소 :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등로478-1 : 신수오거리 → 무등산방향입구 우측2층)
- 수강료 : 풍수 + 사주 15만원(매월)

/ 공개강좌

- 일 시 : 2019. 6. 25(화) 오후7시
- 장 소 : 상동(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교육장)
- 대 상 : 누구나 (선착순○○명)

컨설팅(전문상담) 분야

- 천기비법 대 공개
- 기감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납골당 및 수목장 수액파 중화
- 음택, 양택의 풍수 감정 및 비보
- 사업(정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정(사주, 궁합, 택일 등)
- 작명(산생아, 개명, 상호 등)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010-3146-6370 / 010-2246-1508

금당공인증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완도군 약산면 덕암리 청정비닷가 집 산 1377㎡ 분할가능 1억3천
- 화순 남면 유마리 유마사 마을 1021㎡ 전망 좋음 4800만원
- 담양군 월산면 월계리 주월산 가는 길 2268㎡ 1억5800

투자·매도·교환

- 남구 월산동 소향도 상가주택 대지 104㎡ 건평 98㎡ 공실임 1억2500
- 원통 등 적합 부지 남구 서동 342㎡ 위치좋은 4억5천
- 서구 화정동 대주아파트 145㎡ 정남향 전망좋은 15층 2억5천
- 함평 손불면 산리리 전 8588㎡ 귀농생활적합 2억6500
- 완도군 완도읍 망성리 도로점 산 자연녹지 3306㎡ 교환가능 8천만원
- 나주시 금천면 원곡리 대지 641㎡ 주택 있으나 주택신축적합 1억5백
- 광안구 쌍암동 대형빌딩 중의 2층 25㎡ 과일점 전문점 시설완비 1억5천
- 별장·나주시 다시면 회진리 영산정 부근 땅 450㎡ 건평 110㎡ 3억
- 남구 월산동 월산아파트 부근 조용한 생활적합 664㎡ 2층주택 4억4천
- 담양 금성면 주월산 가는 길 땅 808㎡ 커피숍·식당 적합 3억4천

상가건물

- 순천시 낙안민속마을 땅 2180㎡ 팬션3동 317㎡ 교환가능 8억
- 함평군 해보면 문장 땅 919㎡ 건평 1207㎡ 원통 30. 지하공실 17억
- 농성동 새 원통건물 대지 343㎡ 건평 712㎡ 1층 가게는 공실 17억
- 충창로 4가 땅 261㎡ 건물 1128㎡ 은행 11억 전세 1억8천 월 1000. 25억
- 월산4동 주민센터부근 도로코너 땅 227㎡ 상가주택 357㎡ 매도 5억8천

특급물건

- 나주시 금천면 영산강부근 땅 26334㎡ 전원주택형 빌라 등 적합 29억
- 영암군 학산면 영산강점 산 97404㎡ 건평 8억4천전선 하자 5억8천 매도 3천
- 동구 신수오거리 대로변 1248㎡ 병원 등 다용도 50억
- 무안군 운남면 바다인접 약 9400㎡ 전원주택·요양시설 적합 3억3천
- 남평읍 들장 모뎀 땅 2741㎡ 건평 1748㎡ 요양시설 적합 17억
- 나주시 다시면 광복간도로 4323㎡ 유통시설·창고 등 적합 6억
- 담양군 무정면 땅 3850㎡ 별장 147㎡ 조경완벽 팬션좋은 7억2천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앞문앞

덕남동, 입야

- 장/단기 최고 투자 물건임
- 덕남동, 992㎡, 공유 지분매매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도로점
- 인접토지 맹지도 15~20만원에 매매 됨
- 대학교수, 세무사, 간호사도 공유자임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투자적합
-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매-4500만원(3.3㎡당 15만원)

문의. 010-6834-7400